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애로 요인에 관한 연구*

안태욱 (군산시 청년센터·창업센터 센터장)**

강태원 (군산대학교 국제물류학과 부교수)**

국 문 요 약

중앙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청년 창업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에서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다양한 애로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애로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역 청년창업의 애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참고, 문헌 조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청년창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평가요인 5개 항목을 도출하고, 세부 애로요인으로 25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주요 애로 평가요인을 AHP 기법을 활용해 군산지역 청년(19~39세), 남녀, 계층별(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청년들이 느끼는 창업 애로요인은 비즈니스 모델, 경영관리, 창업자금, 창업제도개선, 창업 인식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역의 청년들은 창업자금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세부요인으로 시장정보획득, 기술사업화, 사업 타당성, 기술개발, 판로개척 순으로 25개 창업 애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성별 비교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애로요인이었다. 반면 여성은 비즈니스 모델 애로 요인을 제외한 모든(경영관리, 창업자금, 창업제도개선, 창업인식개선) 요인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 계층(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별로 창업 애로요인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역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자금보다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해결책 제시가 아닌 성별, 계층별 애로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창업지원 및 상환별 행정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 청년들이 직면한 창업 애로 요인의 실질적인 우선순위와 도출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청년창업, 창업 애로요인, 지역창업, 창업활성화, AHP

1. 서론

국제경기 침체, 기존 산업 생태계의 붕괴 현상, 기업의 경영관리 및 경쟁력 상실로 실물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됨으로써 청년 실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월 기준 통계청 고용 동향 발표자료에서 대한민국은 21세기 최악의 청년 실업률 11.5%를 보여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고용을 창출하고자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부처별, 창업지원기관별,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0년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서 지속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0월 OECD가 발표한 '2018(Entrepreneurship at a Glance Highlights 2018)' 보고서

를 보면 국내 벤처캐피털 투자 지수(2010년을 100으로 볼 때 2017년도 수치)는 242.2로 룩셈부르크, 폴란드, 미국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¹⁾.

그런데도 인프라 확대 등 양적 규모는 많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질적인 수준은 미흡하다(황보윤·이일한, 2012).

청년창업 자체는 국가적 혁신과 경제적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육성해야 할 분야임은 틀림없다. 미국의 경우 아이비리그에서는 가장 우수한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지망한다. 그 결과 창업을 통해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작·간접적 영향으로 파생된 활력들이 미국 경제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시대적으로 창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추세 측면으로 청년 창업가들의 특특 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해 다가올 미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사업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o. 2019K2A9A2A06024066)

** 주저자, 군산시 청년센터·창업센터 센터장, hellocco777@gmail.com

*** 교신저자, 군산대학교 국제물류학과 부교수, twkang@kunsan.ac.kr

· 투고일: 2020-03-10 · 수정일: 2020-04-10 · 게재확정일: 2020-04-23

1) 비즈한국 (2019.07.10.) : 1조원 쏟아부어도 청년창업은 제자리, 왜?

그러나 막상 청년들이 창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벽과 애로사항이 존재해 실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문현·양동우(2014)은 정부 주도 창업지원 정책은 창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청년창업의 질적인 성장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과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업가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년창업 분야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적 창업지원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 청년창업에 대한 애로 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증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이 장벽에 막혀 실패로 이어지는 애로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청년창업에 관한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청년들이 창업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의 청년창업에 대한 근본적인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청년창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로 의의가 있다.

II. 연구 배경

2.1 청년창업

청년에 대한 개념은 100세 시대가 되면서 다양한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다. 청년의 기준은 나라마다 개념이 차이가 있으며, 각 나라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기준에 따라 다르다(노규성·강현직, 2012). 또한, 신체적, 정신적, 상황별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청년의 범위를 대한민국 통계청은 14~39세까지 남녀 모두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당은 19~45세까지 청년당원으로 규정하고, 2013년 출범하였던 청년위원회에서는 20~39세 남녀를 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 이외 지자체·공공기관 지원대상에서 인정하는 나이도 제각각이다. 청년 창업지원 기준 나이에 따라 부처별, 지자체, 지원기관 등 사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 청년층 대상으로 군산시 창업센터에서 지원대상 범위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기준으로 표본을 지정하였다.

창업자를 영어로 Entrepreneur라고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실 프랑스어로 Entreprendre 어원을 사용하며 이를 영어로 직역하면 Entre(Between)와 Prendre(Take)의 합성어이다. 그 당시 13세기의 마르코 폴로를 지칭하여 중개인이라 일컫는다. 청년 창업자는 20대에서 30대 신체적 왕성한 활동을 시기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혁신하며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

하게 되며, 창업 경영과정에서 복합적 원인에 의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규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초창기 창업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였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이후에 지속해서 극복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기업이 직면하게 될 청년 창업가들이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또한, 창업자는 사업아이디어의 확보를 통해 사업성 분석, 사업계획 수립, 실행 등을 주도 및 책임지는 사람이다. 유무형 자원을 동원해 설립된 창업기업의 목적에 따라 기능을 발휘해 성장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Amit et al., 1995).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법인 통계에 의하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창업에 성공하는 청년 창업가들은 여러 가지 애로 요인에 의하여 한계에 직면하고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김세움·김주섭(2018) 청년층 노동시장 정책 심층평가 연구에서 청년층이 창업과정에서 겪은 애로 요인에 대한 비용조달, 인력확보, 행정절차, 업종선정, 기술확보, 사업장 위치 선정, 창업 관련 정보 수집 조사분석을 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높이고 지역 청년 창업가들에게 성공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장애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2. 창업 애로 요인

청년들은 창업 도전에 있어서 자신의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과업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안착과 성장을 위해서 위기극복 및 창업 애로사항을 극복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7)에서는 2017년 창업실태 조사를 한 결과 창업자금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61.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창업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이 31.9%,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 지식, 능력 부족이 26.7%로 분석되었다. 전국벤처기업단체 협의회 연구조사에서 대전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실패 요인으로 기술개발 자금 부족 1위, 기술개발 인력 부족 및 이직 2위, 신기술 제품시장 미성숙 3위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2008) 연구에서는 창업 이후 창업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에서는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판로, 자금, 인력 등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으로 밝혔다. 본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창업기업이 창업에 겪는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51.5%), 인력 확보(21.9%), 판로개척(12.4%), 환경, 창업 관련 규제(5.7%) 등 연구결과 애로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2014) 벤처기업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에서는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로 나뉘서 벤처기업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자금조달’(47.4%), ‘판로개척’(23.8%), ‘기술개발 및 기술의 사업화’(15.9%), ‘주력업종 성장 정체’(9.6%), ‘경영관리’(2.0%) 순으로 응답하였다.

박범수 외(2002) IT 벤처기업의 애로 요인과 벤처창업보육 시스템 연구에서 시장 효율성과 시스템적 관점에서 접근해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해결점을 제시하였다. 창업 애로 요인에 대해서는 기관과 다양한 연구자들이 창업의 분야별, 업종별, 성별, 시기별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2018) 연구에서 2018년 벤처 기업 정밀 실태조사에서는 경영 애로사항 ‘자금조달 및 운용 등의 자금관리 애로(74.6%)’가 가장 높았으며,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애로(63.1%)’,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애로(54.9%)’, ‘국내 판로개척에 관한 애로(51.8%)’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고 조사되었다.

최종인·백강(2018)은 창업 초기 기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엔젤투자 활성화 기능과 민간자금 유입에 대한 정책금융 영역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근영(2004)의 연구에서는 25개 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에서도 기술창업기업의 경우 애로 요인 진단에서 인력, 경영 역량, 금융, 창업환경 및 인프라, 제도 및 행정절차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윤준 외(2012) 연구에서는 창업 애로사항을 대학원생과 벤처기업인 대상으로 조사하여 엔젤투자 등 초기창업자금 지원 부족, 실패 용인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 창업에 대한 지식 부족, 멘토 부족 등으로 연구결과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창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의 기술기반 창업을 장려하고 촉진 및 정부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같은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서 창업 애로 요인에 관해서 연구하였다(양현봉·박종복, 2011).

최창락 외(2014)에서 여성 창업실태 조사에서 창업을 준비할 때 애로사항으로 사업 아이템 및 업종선택, 행정절차, 판로확보, 사업 타당성 분석, 입지선정 및 확보, 자금조달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 도전 시 애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부문별 요소를 상위기준과 하위기준의 2단계로 계층화하여 AHP 계층 구조를 수립하였다. 청년창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군산시 지역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창업 애로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아래의 청년창업 애로 요인 핵심변수를 선정하였다. 각 요인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위기준으로는 창업자금, 비즈니스 모델, 경영관리, 창업 인식개선, 창업제도개선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2.2.1. 창업자금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금이다. 많은 청년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거나 창업 의지가 높더라도 현실적인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기술 및 제품 개발 자금 등에 대한 확보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재단법인 경기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8)에서는 경기도에서 조사한 창업보육사업의 여성 참여 실태와 과제 연구에서 창업에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자금조달이라는 조사 결

과를 밝혔다.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2017)의 2016(2014~2016년) 창업기업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해 분석된 결과를 보면 남녀 창업기업의 창업 시에 필요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복수 응답 조사하였는데 자기자금(90%), 개인 간 차용(20%),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2%), 정부 용자 및 보증(3.6%), 엔젤 및 벤처캐피탈(0.5%), 은행 및 비은행 대출(30%)로 나타났다.

위 기업실태보고서에서 창업기업 경영에서 자금조달과 판로개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애로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기희 외(2013) 대전지역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연구에서 정부와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지원을 지원받을 기회가 없고, 사채시장을 통해 조달하기도 매우 어렵다. 위 연구에서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은 자금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양현봉(2014)은 자금조달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담보 부족(46%), 가치평가절하(16.2%), 대출 자격조건미달(15.7%), 신용 부족(9.8%), 기타(12.3%)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금을 중요한 애로 요인으로 선정하고 세부요인으로 초기자기자본 확보문제, 운영자금조달, 시설자금, 투자유치 어려움, 기술개발자금 확보에 대한 애로 요인으로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2.2. 비즈니스 모델 구축

열정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은 새로운 검증과정이며 도전적이 과제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로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아이템인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창업자가 다양한 자원을 투자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고 할 때, 만일 사업성이 부족한 모델이라는 분석과 판단이 늦게 된다면 심각한 리스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현봉 외(2009) 의하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에 개념 검증지원센터(Proof-of Concept Center)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아이디어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금여유, 즉 종자자금(Seed Money)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문영역 자문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김서균 외(2003) 연구에서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기술개발 실패 요인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자금 부족, 연구인력 부족, 타사 개발로 인한 경쟁력 상실, 개발기술의 진부화, 특허 분쟁 등 법적 문제, 기타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개발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 자원,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술사업화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애로 요인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어야 창업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향후 특허분쟁으

로 인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면 되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 타당성 분석, 특허분쟁, 시장정보 획득, 기술개발(R&D), 기술사업화를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따른 세부요인을 위와 같이 지정하였다.

2.2.3. 경영관리

대부분 청년 창업가들은 실질적인 사회경험에 대해 경험치가 낮으며, 비즈니스 경영에 대한 노하우 역시 중장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경영관리에 대한 애로 요인은 창업을 도전하는데 청년 창업가들에게 중요한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들은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영철학을 갖출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7) 창업지원 기업 이력 및 성과 조사에 따르면 실패 및 폐업의 원인에서 창업자의 지식·경험·능력 부족으로 규정하고 경영 전문성 부족과 인적 네트워크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설문 조사에 활용하였다.

무엇보다 창업기업이 초창기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선행요건이다. 김기희 외(2013) 연구에서 창업기업의 경우 고급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지만, 인재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근속을 유지하고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전 벤처·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애로사항에서 자금 부족 문제에 이어서 기술개발 인력 부족, 이직문제가 가장 중요한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김기희(2010) 연구에서 국내외 판로개척이 대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부분에서 애로 요인이라고 밝혔다.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판로개척 지원사항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원정책과 방향에서 대표적인 우선순위로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 등 지원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창업과정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과 협업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비즈니스에서 네트워킹은 필수적이고 반드시 역량 강화를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경영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창업가들이 실질적인 경영상황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면 반드시 판매가 잘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많은 창업기업이 실패하게 된다. 창업가의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 서비스, 제품 등을 판로개척 함에 있어 애로 요인을 극복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해외시장

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언어, 지형, 문화, 정보에 대해 극복하여야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마인드(전문성),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 확보, 네트워크 활용, 판로개척을 경영관리의 세부요인으로 지정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2.2.4. 창업 인식개선

양현봉 외(2009)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창업환경이 다른 경쟁국 나라와 비교한다면 ‘창업 실패에 따른 사회안정망 미약’ 요인이 열악하여 애로 요인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2012년 GEM(주요국의 창업 활동) 비교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비교적 경쟁국보다 창업기회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미국(43%), 영국(33%), 이스라엘(31%) 및 한국(13%)으로 나타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국(32%), 영국(36%) 및 한국(43%)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인식개선 부분을 지인의 만류, 특히 부모가 청년창업에 대해서 만류하거나 반대하여 창업에 도전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 안태욱 외(2017) 연구에서 청년계층인 대학생들의 창업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지지(부모협력)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그러므로 청년창업에 대한 반대 역시 부모님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인식 부족, 부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학부모(부모)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확산,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용정(2014) 연구에서는 대학의 기술창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실패에 대한 부담 항목을 조사하였다. 창업 실패에 대한 청년 창업가들이 느끼는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실패 창업자에게 재도전이 할 수 있도록 재기를 위한 교육과 멘토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연구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였다. 대학기술창업 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변 창업자인지가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뱀스칼리지는 이론적인 수업내용보다 보육공간 등 다양한 체험과 운영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창업정책에서는 2018년부터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수 있는 OPEN(개방형) 창업지원 공간으로 꿈마루, 초기 창업자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역 소도시에서는 이러한 인프라 공간 시설이 부족하여 애로 요인이다. 지역에 사무공간을 확보된다면 기술개발, 협력, 협업이 가능하며 안정적으로 안착하여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군산지역에도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를 중심으로 OPEN(개방형)형 창업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어 지역의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 인식개선을 지인의 만류, 부정적

인 사회 분위기, 창업에서 성공까지 경제활동 문제해결,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재기 기회 부족으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하고자 한다.

2.2.5. 창업제도개선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활발하게 활력을 얻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생 창업기업들이 왕성한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실업 해소와 신규 고용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창업 활성화에 따른 규제 완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즉 창업제도 개선 및 창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연구원(2018)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육성 및 기업 친화 정책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창업 이후 직면한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자금조달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2005년 이후 ‘환경 등, 창업 관련 규제’의 경우는 2001~2004년 기준으로 창업한 기업가일수록 애로사항이라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는 것이 창업제도개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특징이다.

특히 산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대만, 일본 등 경쟁국들과 비교해 창업환경 분석에서 창업환경에 대해서 열악한 주요요인을 조사하였다. 가장 중요한 주된 요인을 창업 실패에 따른 사회안전망 미흡(33%), 복잡한 창업절차 및 규제(28.6%),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23.9%), 기업 불신 정서(9.1%), 기타(5.4%) 등으로 나타났다.

김서균 외(2003)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기술평가 지원(1.6%)을 차지하였고 이는 창업기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이다. 창업의 영역에는 기술창업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창업에 대한 분야는 다양하다. 특히 기술창업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성장과 출구(회수) 전략에서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청년들의 창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창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평가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제도개선에서 세부적으로 구비서류, 신청 절차 복잡, 기존 직업 활동(학업)으로 인한 제약, 기술가치 평가시스템 부족, 각종 규제제약, 불편한 행정절차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5개의 상위구성에 각각 5개의 하위기준을 구성하여 표3과 같이 총 25개의 항목별로 쌍대비교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창업 애로 요인의 항목별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표 1> 최종변수 수립

1차 목표	평가요인	세부요인	1	2	3	4	5	6	7	8
청년 창업	창업자금	초기자금지원	○				○	○		
		운영자금조달		○	○	○				

애로 요인 연구	비즈니스 모델구축	시설자금		○					○			
		투자유치					○				○	
		기술개발자금							○			
	경영관리	비즈니스 모델구축	사업타당성(BM)	○	○							
			특허분쟁		○			○				
			시장정보획득				○					○
			기술개발		○			○	○			○
			기술사업화		○					○		
	경영관리	경영관리	경영마인드(전문성)			○		○		○		
			해외시장개척		○			○				
			전문인력 확보			○	○	○	○			○
			네트워크 활용		○				○			
			판로개척			○	○	○	○			
	창업인식 개선	창업인식 개선	지인(부모 등)의 민류	○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								○
			창업부터 성공까지 경제활동 문제	○								○
			사업 실패 두려움	○								
			재기 기회 부족	○								○
	창업제도 개선	창업제도 개선	구비서류와 신청절차 복잡			○			○	○		
			기존 직업 활동(학업 등)으로 인한 제약	○								
기술가치 평가시스템 부족				○								
각종 규제제약								○				
										○		

출처: 최윤선(2018),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2018), 최청락 외(2014), 김영환·오지선(2017), 박재용(2000), 김기희(2010),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7), 김세음·김주섭(2018)

III. 청년창업 애로 요인 실증연구

3.1. AHP 방법론

계층 분석적 의사 결정법(AHP)은 1970년대 Saaty에 의해 개발된 의사 결정법으로, 의사결정의 계층 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간 상대비교를 통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과 관련된 의사결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연구방법이다. AHP 기법은 주요한 의사 결정자의 판단에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쌍대비교의 결과를 종합하면서 일관성 지수를 도출하는데, 지수가 0.1이 넘게 되면 의사결정이 비일관적인 의미로서 분석과정을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자의 논리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AHP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잡한 사안을 주요 요인과 세부요인의 계층으로 나누어 이들 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하여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

을 도출할 수 있다.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따라 나열된 요인별 상대적인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결정하기 어렵게 때문에, 같은 계층의 요인을 쌍대비교하여 더욱 중요한 요인을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쌍대비교를 위해서 <표 2> 과 같이 Saaty(1980)가 개발한 9척도 법으로 중요도를 부여한다. 중요도 1은 두 요인이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중요도 9는 한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표 2> AHP에서 사용된 척도 설명

중요도	정의	설명
1	비슷	두 요인이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판단
3	약간 중요	한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약간 중요
5	중요	한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강하게 중요
7	매우 중요	한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매우 강하게 중요
9	극히 중요	한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극히 중요
2,4,6,8	위 값들의 중간값	위 값들의 중간값에 해당한다고 판단

출처: Saaty (1980)

일반적으로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 방법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아래와 같이 4단계의 작업을 수행한다(조근태 외, 2003). 의사결정 사항들을 주요요인과 세부요인으로 분류하여 의사결정계층을 설정한다. 둘째, 쌍대비교를 통하여 설정된 의사결정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판단자료를 수집한다. 상위계층에 있는 요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하위 계층에 있는 요소 간의 상대비교를 통하여 도출한 요소 간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추정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계량적인 판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9점 척도를 많이 이용하여 설정된 요소 간 쌍대비교를 진행한다.

$$A = [a_{ij}] = \begin{bmatrix} a_{11} & a_{12} & \dots & a_{1n} \\ a_{21} & a_{22} & \dots & a_{2n} \\ \dots & \dots & \dots & \dots \\ a_{n1} & a_{n2} & \dots & a_{nn} \end{bmatrix} \quad (식1)$$

$$a_{ij} = 1/a_{ji}, a_{ij} = 1, \forall i$$

셋째, 고유치를 사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추정한다. 동일한 계층 내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요소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w_i (i = 1, \dots, n)$ 일 경우 쌍대비교 행렬에서의 a_{ij} 는 $w_i/w_j (i, j = 1, \dots, n)$ 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AHP에서는 정확한 가중치(w)를 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가정하며 이때 행렬을 A' 라고 하면 행렬의 가중치 추정치 W' 는 식2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A' \cdot w' = \lambda_{\max} \cdot w' \quad (식2)$$

λ_{\max} 는 n 보다 크거나 비슷하므로 산출된 λ_{\max} 가 n 에 근접하는 값을 얻을수록 쌍대비교행렬 A 는 일관성을 가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일관성은 일관성 지수(CI)와 난수 지표(RI)를 이용하여 일관성 비율(CR)을 도출할 수 있다. $CI=0$ 이면 행렬은 완전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CI = (\lambda_{\max} - n) / (n - 1) \quad (식3)$$

보통 일관성 비율이 0.1 이하이면 해당 쌍대비교행렬은 합리적인 일관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CR = CI / RI \quad (식4)$$

난수 지표는 RI(Random Index)는 1~9까지의 수치를 임의의 난수지수로 설정하여 역수 행렬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적인 순위가 결정되면 일관성 비율을 계산하여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표 3> 난수 지표

n	1	2	3	4	5	6	7	8	9
난수 지수 (RI)	0	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넷째, 평가대상이 되는 여러 의사결정 대안들에 대한 종합 순위를 얻기 위하여 각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인 가중치를 통하여 중요도를 판단하고 대안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즉 최상위 계층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하위에 있는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도를 구할 수 있다.

IV. AHP를 활용한 우선순위 분석

4.1. 자료수집 및 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는 AHP를 이용하여 군산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관심과 의도가 있는 대학생, 예비 창업자,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하면서 애로 요인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연구가 진행되었다.

AHP 분석의 장점은 소수의 전문성 있는 모집단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기법으로 이설빈·박주경(2018)은 50명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SCM역량 모델링과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노두환 외(2016)는 22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업 사업화 애로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전공 및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 군산시 창업센터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예비창업자, 그리고 지역에서 창업에 도전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청년(19세-39세)

층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대면조사 또는 메일을 활용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분류별로 설문 조사에 응답해주신 41개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일관성 지수 기준을 파악한 후,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어 AHP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41개 설문을 대상으로 성별, 나이, 창업 여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아래의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26명, 여성이 15명으로 남성이 많았으며, 나이는 20대가 27명, 30대가 14명으로 20대가 많았고, 창업 여부는 대학생 14명, 예비창업자 15명, 기 창업자 12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성	26	63.4
	여성	15	36.6
나이	20대	27	65.9
	30대	14	34.1
창업 여부	대학생	14	34.1
	예비창업자	15	36.6
	기창업자	12	29.3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얻은 응답 결과는 기하평균(geometric mean)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구했다(Aczel & Saaty, 1983). 기하평균은 복수 평가자가 평가치를 통합하여 사용할 경우 행렬의 역수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창업 성공 요인(심용호 외, 2015), 코워킹 스페이스의 운영요소(서종석 외, 2015) 등의 연구도 기하평균을 활용한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회수된 설문지 41개의 설문을 기하평균을 구하여 입력 데이터를 구성한 후 Microsoft office Excel 2016을 이용하여 쌍대비교를 진행하였다.

4.2. 연구 설문 조사 쌍대비교

먼저 지역의 창업 애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창업자금, 비즈니스 모델, 경영관리, 창업 인식개선, 창업제도개선 간에 쌍대비교를 진행하였다.

λ_{max} 는 5.19441로 5가 넘으며, CI값은 0.049, CR은 0.043으로 모두 0.1이하로 도출되어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일관성 비율 검증을 통과하였다.

<표 5>에 정리와 같이 창업 애로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즈니스 모델(0.412)로 다른 요인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으며, 경영관리(0.191), 창업자금(0.182), 창업제도개선(0.119), 창업 인식개선(0.095)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청년창업 애로 요인 쌍대비교

평가요인A	창업자금 (B1)	비즈니스 모델(B2)	경영관리 (B3)	창업인식 개선(B4)	창업제도 개선(B5)	가중치 (W)
창업자금 (B1)	1.000	0.738	1.042	1.476	1.056	0.182
비즈니스 모델(B2)	1.355	1.000	3.693	3.615	3.203	0.412
경영관리 (B3)	0.960	0.271	1.000	2.544	2.238	0.191
창업인식개선(B4)	0.678	0.277	0.393	1.000	0.761	0.095
창업제도개선(B5)	0.947	0.312	0.447	1.315	1.000	0.119
$\lambda_{max}=5.19441, CI=0.049, RI=0.12, CR=0.043$						

창업자금의 하위요소로 초기자본, 운영자금, 시설자금, 투자유치, 기술개발자금에 대하여 쌍대비교를 진행하였다.

λ_{max} 는 5.09606이며, CI는 0.024, CR은 0.021로 일관성 비율 검증을 통과하였다. 아래 <표 6>에 정리와 같이 창업자금의 하위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술개발자금(0.253)의 애로 요인이 높았으며, 운영자금(0.220), 투자유치(0.215), 초기자본(0.181), 시설자금(0.1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창업자금 하위요인 쌍대비교

평가요인B1	초기자기 자본(C1)	운영자금 (C2)	시설자금 (C3)	투자유치 (C4)	기술개발 자금(C5)	가중치 (W)
초기자기 자본(C1)	1.000	1.207	0.902	0.829	0.697	0.181
운영자금 (C2)	0.829	1.000	2.354	1.077	0.807	0.220
시설자금 (C3)	1.108	0.425	1.000	0.611	0.470	0.132
투자유치 (C4)	1.206	0.929	1.638	1.000	0.955	0.215
기술개발 자금(C5)	1.434	1.240	2.130	1.047	1.000	0.253
$\lambda_{max}=5.09606, CI=0.024, RI=1.12, CR=0.021$						

비즈니스 모델의 하위요소로 사업 타당성, 특허분쟁, 시장정보 획득, 기술개발, 기술사업화의 5개 요인 간 쌍대비교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λ_{max} 는 5.17588이며, CI는 0.044, CR은 0.039로 일관성 비율 검증을 통과하였다.

아래 <표 7>에 정리와 같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시장정보 획득(0.272)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근소하게 기술사업화(0.269)가 뒤를 이었으며 사업 타당성(0.206), 기술개발(0.171), 특허분쟁(0.08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비즈니스 모델 하위요인 쌍대비교

평가요인B2	사업타당성(C6)	특허분쟁(C7)	시장정보획득(C8)	기술개발(C9)	기술사업화(C10)	가중치(W)
사업타당성(C6)	1.000	2.735	0.524	1.465	0.873	0.206
특허분쟁(C7)	0.366	1.000	0.362	0.328	0.450	0.089
시장정보획득(C8)	1.908	2.762	1.000	1.229	1.148	0.272
기술개발(C9)	0.682	3.050	0.814	1.000	0.383	0.171
기술사업화(C10)	1.146	2.222	0.871	2.614	1.000	0.269
$\lambda_{max}=5.17588$, CI=0.044, RI=1.12, CR=0.039						

경영관리의 하위요소로 경영마인드,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 확보, 네트워크 활용, 판로개척의 5개 요인 간 쌍대비교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λ_{max} 는 5.12008이며, CI는 0.030, CR은 0.027로 일관성 비율 검증을 통과하였다. <표 8>에 정리와 같이 경영관리 애로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판로개척(0.283)이며, 전문인력확보(0.268), 네트워크 활용(0.215), 경영마인드(0.145), 해외시장 개척(0.08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경영관리 하위요인 쌍대비교

평가요인B3	경영마인드(C11)	해외시장개척(C12)	전문인력확보(C13)	네트워크활용(C14)	판로개척(C15)	가중치(W)
경영마인드(C11)	1.000	2.254	0.637	0.567	0.373	0.145
해외시장개척(C12)	0.444	1.000	0.359	0.390	0.454	0.089
전문인력확보(C13)	1.571	2.788	1.000	1.831	0.826	0.268
네트워크활용(C14)	1.763	2.565	0.546	1.000	0.882	0.215
판로개척(C15)	2.683	2204	1.211	1.134	1.000	0.283
$\lambda_{max}=5.12008$, CI=0.030, RI=1.12, CR=0.027						

창업 인식개선의 하위요소로 지인(부모, 친척, 친구 등) 만류,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창업부터 성공까지 경제활동 문제, 사업실패 두려움, 재기 기회 부족의 5개 요인 간 쌍대비교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λ_{max} 는 5.0354이며, CI는 0.009, CR은 0.008로 일관성 비율 검증을 통과하였다.

아래 <표 9>에 정리와 같이 창업 인식 측면의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창업에서 성공까지의 경제활동(0.392)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실패의 두려움(0.262), 재기 기회 부족(0.217), 지인의 만류(0.057),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0.0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창업 인식개선 하위요인 쌍대비교

평가요인B4	지인(부모)만류(C16)	부정적인 사회분위기(C17)	성공까지 경제활동(C18)	사업실패 두려움(C19)	재기 기회 부족(C20)	가중치(W)
지인(부모)만류(C16)	1.000	0.873	0.176	0.201	0.225	0.057
부정적인 사회분위기(C17)	1.146	1.000	0.213	0.283	0.303	0.071
성공까지 경제활동(C18)	5.667	4.699	1.000	1.539	2.351	0.392
사업실패 두려움(C19)	4.969	3.539	0.650	1.000	1.225	0.262
재기 기회 부족(C20)	4.439	3.296	0.425	0.816	1.000	0.217
$\lambda_{max}=5.0354$, CI=0.009, RI=1.12, CR=0.008						

마지막으로 창업제도 개선의 하위요소로 구비서류, 기존활동 제약, 기술가치 평가, 각종 규제 제약, 불편한 행정절차의 5개 요인 간 쌍대비교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λ_{max} 는 5.04457이며, CI는 0.011, CR은 0.010으로 일관성 비율 검증을 통과하였다. 아래 <표 10>에 정리와 같이 창업제도 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불편한 행정절차(0.308)로 나타났으며, 각종 규제 제약(0.220), 기술가치 평가(0.162), 기존활동 제약(0.157), 구비서류(0.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창업제도개선 하위요인 쌍대비교

평가요인B5	구비서류(C21)	기존활동 제약(C22)	기술가치 평가(C23)	각종규제 제약(C24)	불편한행정절차(C25)	가중치(W)
구비서류(C21)	1.000	1.206	1.085	0.639	0.369	0.153
기존활동 제약(C22)	0.829	1.000	0.965	0.738	0.624	0.157
기술가치 평가(C23)	0.921	1.037	1.000	0.812	0.559	0.162
각종규제 제약(C24)	1.565	1.354	1.231	1.000	0.775	0.220
불편한 행정절차(C25)	2.708	1.603	1.788	1.291	1.000	0.308
$\lambda_{max}=5.04457$, CI=0.011, RI=1.12, CR=0.010						

4.3. 종합결과 분석

지금까지 지역의 청년창업 애로 요인의 평가요인과 세부요인별로 애로사항을 도출하였다.

평가요인과 세부요인의 가중치를 종합하여 <표 11>과 같이 전체적인 애로사항의 순위를 도출하였다. 비즈니스 모델(0.412)이 가장 중요한 애로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경영관리(0.191), 창업자금(0.182)의 순서로 중요도 순위가 도

출되었다. 세부요인에 대한 복합가중치를 보면 시장정보획득(0.112)이 가장 높은 애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기술사업화(0.111), 사업 타당성(0.085), 기술개발(0.071), 판로개척(0.054)의 순서로 중요 순위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군산 청년들의 경우 청년창업에 직면하면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비즈니스 모델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창업자금이 가장 큰 애로요인이라고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분석해본 결과 지역 중소 도시에 거주하다 보니 대도시보다는 시장정보에 차이가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다양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기술 사업화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사업 타당성 분석과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창업자금 확보하는 것보다 더 높은 애로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11> AHP 복합가중치와 순위

평가 요인	가중치 (Wa)	세부요인	가중치 (Wb)	순위	복합가중치(Wa*Wb)	순위
창업 자금 (B1)	0.182	초기자본	0.181	4	0.033	14
		운영자금	0.220	3	0.040	9
		시설자금	0.132	5	0.024	18
		투자유치	0.215	2	0.039	10
		기술개발자금	0.253	1	0.046	7
비즈니스 모델 (B2)	0.412	사업 타당성	0.206	3	0.085	3
		특허분쟁	0.089	5	0.034	13
		시장정보획득	0.272	1	0.112	1
		기술개발	0.171	4	0.071	4
경영 관리 (B3)	0.191	기술사업화	0.269	2	0.111	2
		경영마인드	0.145	4	0.028	15
		해외시장개척	0.089	5	0.017	23
		전문인력확보	0.268	2	0.051	6
창업 인식 개선 (B4)	0.095	네트워크 활용	0.215	3	0.041	8
		판로개척	0.283	1	0.054	5
		지인(부모)의 만류	0.057	5	0.005	25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0.071	4	0.007	24
		성공까지 경제활동	0.392	1	0.037	11
창업 제도 개선 (B5)	0.119	사업실패두려움	0.262	2	0.025	17
		재기 회부족	0.217	3	0.021	19
		구비서류	0.153	5	0.018	22
		기존활동계약	0.157	4	0.019	21
		기술가치평가	0.162	3	0.019	20
각종 규제계약	0.220	2	0.026	16		
불편한 행정절차	0.308	1	0.037	12		

4.4. 성별에 따른 애로 요인 추가 분석

지금까지 지역의 청년창업 애로 요인의 평가요인과 세부요인별로 애로사항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애로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 분석을 통해 남성과 여성을 따로 구분하여 AHP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값이 도출되었다. 참고로 분석결과 CR값과 CI 값이 모두 0.1 이하의 수준으로 설문 이 일관성 있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첫째 남성은 여성보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애로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을 제외한 남녀 성별에 대한 애로 요인 분석에서 창업자

금, 경영관리, 창업 인식개선, 창업제도개선 요인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대체로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결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반적인 창업에 애로사항을 더 높게 직면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그림 1> 평가요인의 성별 애로 요인 분석

또한,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른 세부요인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 복합가중치가 높은 상위 TOP 10개 애로 요인을 선별하였다. <표 12>를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시장정보 획득, 사업 타당성, 판로개척 등의 애로 요인이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확보 등으로 아래와 같이 10가지 애로 요인이 높고 남녀가 느끼는 창업의 애로 요인에 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2> 세부요인의 성별 애로 요인 우선순위

순위	남성	복합가중치	여성	복합가중치
1	시장정보획득	0.114	기술사업화	0.084
2	기술사업화	0.099	시장정보획득	0.072
3	사업 타당성	0.099	전문인력확보	0.060
4	기술개발	0.070	기술개발	0.060
5	전문인력확보	0.054	불편한 행정절차	0.057
6	판로개척	0.051	운영자금	0.051
7	기술개발자금	0.049	각종 규제계약	0.051
8	네트워크 활용	0.046	투자유치	0.048
9	투자유치	0.038	네트워크 활용	0.046
10	생활비	0.037	판로개척	0.044

4.4 청년계층별 애로요인 추가 분석

마지막으로 창업전공 및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 예비창업자, 기 창업자의 애로 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청년(19세~39세)들을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AHP로 추가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CI, CR값이 모두 0.1 이하의 수준으로 설문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아래 <그림 2>는 평가요인의 청년 대상별 애로 요인이다. 창업자금은 대학생보다는 기 창업자의 애로 요인이 높았다. 비즈니스 모델 확립에 대한 애로 요인 역시 대학생보다는 예비창업자, 기 창업자일수록 애로 요인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경영관리는 대학생들이 다른 그룹보다

애로 요인이 높아 기 창업자로 갈수록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창업 인식개선과 창업제도 개선에서는 예비창업자가 기존의 다른 대학생, 기 창업자 그룹보다 애로 요인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림 2> 청년 계층(그룹)별 애로요인 추가 분석

<표 12>와 같이 청년층 대상별(대학생, 예비창업자, 기 창업자)로 세부요인에 대한 애로 요인을 비교하여 복합가중치가 높은 상위 TOP 10개 요인을 선별하였다.

<표 12> 청년 계층(그룹)별 세부 애로요인

순위	대학생	복합 가중치	예비 창업자	복합 가중치	기창업자	복합 가중치
1	시장정보획득	0.090	기술사업화	0.100	시장정보획득	0.132
2	기술사업화	0.086	시장정보획득	0.083	사업 타당성	0.099
3	전문인력확보	0.074	사업 타당성	0.072	기술사업화	0.096
4	네트워크 활용	0.062	기술개발	0.064	기술개발	0.083
5	기술개발	0.060	판로개척	0.053	운영자금	0.064
6	사업 타당성	0.057	각종 규제제약	0.050	판로개척	0.058
7	투자유치	0.056	불편한 행정절차	0.046	기술개발자금	0.049
8	기술개발자금	0.050	전문인력확보	0.045	초기자기자본	0.048
9	불편한 행정절차	0.037	네트워크 활용	0.045	전문인력확보	0.047
10	경영마인드	0.036	경영마인드	0.041	성공까지 경제활동	0.043

첫째, 군산은 지역 소도시이며, 수도권과 물리적인 거리가 있으므로 모든 청년계층에서 시장정보획득과 기술사업화 애로 요인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대학생에서 예비창업자, 기 창업자가 될수록 사업 타당성의 우선순위가 높아졌다. 실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 타당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셋째, 기 창업자는 실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초기자기자본의 애로 요인이 타 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들의 창업 성공을 높이기 위해 기 창업자의 경우 창업부터 성공하기까지 생활해야 하는 경

제활동에 대한 애로 요인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 부분에 맞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은 판로개척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지만, 예비창업자와 기 창업자의 경우 판로개척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비교적 높은 애로 요인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군산지역의 청년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 요인을 도출하고 군산시 지역에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41명을 대상으로 AHP를 통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청년 대상은 그룹별로 구분하였는데 청년(19세~39세) 기준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대상으로 대학생, 예비창업자, 기 창업자로 세분화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 분석결과 청년창업에 대한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었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이 직면하는 주요 애로요인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비즈니스 모델 구축, 경영관리, 창업자금, 창업제도개선, 창업 인식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연구에서 창업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창업자금이라고 밝힌 기존 연구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창업자금 확보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수립 역량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 청년 창업가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수립을 위한 강화된 교육과 지원정책이 먼저 필요하다. 예를들어 미국 벤처캐피털 전문 조사 기관인 CB insights(2014) 보고서에 실패한 창업기업 101개사를 조사하여 창업 실패 요인에 대해서 20가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게 나온 실패 요인으로 시장에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및 제품 생산이 42% 나왔으며, 대부분 창업 실패 원인으로 기술사업화 문제, 기업가정신 부족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부실로 나타난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세부 애로요인으로 시장정보획득, 기술사업화, 사업 타당성,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순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청년창업에 있어서 자신의 아이디어 착안하고 시장조사, 제품화, 기술 개발하여 기술사업화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수립, 고도화 과정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는 이설빈(2017)의 기존 선행연구에서 벤처창업 성공 요인으로 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청년계층의 성별에 따른 애로요인 비교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 청년들은 비즈니스 모델 평가요인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성 청년계층은 비즈니스 모델 애로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창업자금, 경영관리, 창업제도개선) 영역에서 남성보다 높게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본 결론은 지역에서 남성 창업가들이 여성보다 기술창업과 지식서비스 창업 분야 창업이 많고, 여성 청년계층들은 일반창업과 소상공인 창업 업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청년 창업지원 정책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천혜숙(2016) 연구에서도 여성 기업은 남성 기업보다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여성 기업이 고성장 창업에 저조한 요인으로 외부자금 조달 어려움, 아이디어 및 기술 경험 부족, 일과 가정의 병행 어려움 등이 있다고 밝혔다.

넷째, 청년 대상 계층별(그룹) 상대적 애로요인 분석에 있어 대학생 청년계층은 경영관리 부분이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요인으로 나타났고, 예비창업자는 창업 인식개선과 창업제도 개선 부분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 창업자는 창업자금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 부분에 상대적으로 다른 대상보다 애로요인 중요도가 높았다. 즉, 청년(19~39세) 계층에서 자신의 상황과 현재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느끼는 애로요인을 해결해주는 것이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애로요인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비즈니스 모델수립을 위한 교육, 정보지원, 컨설팅, 기술사업화가 지원이 중요하며, 남녀 성별에 따라 애로요인이 다르며 성별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애로요인 극복 전략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른 애로요인 극복 창업지원 행정서비스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청년들은 자신의 직업적, 상황별 위치에 따라 느끼는 애로요인이 다르며, 이에 대한 맞춤형 애로요인 해결 창업지원 정책이 제공되어야 청년창업의 성공률과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청년들이 느끼는 창업 애로요인의 우선순위와 도출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지역에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그런데도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의 표본을 특정 지역인 전북 군산시 지역 청년을 연구 표본대상으로 하였기에 국내 전체 청년을 대표하지 못함으로써 연구의 일반화 오류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지리적으로 수도권, 다른 지역 청년들 사이에 청년창업의 애로요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후속 비교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대상별 청년의 표본 수 역시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창업의 애로요인 중요도 도출된 결과가 실질적인 청년창업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REFERENCE

김근영(2004).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Issue Paper(2004.12), 삼성경제연구소.
 김기희(2010). *대전지역 중소기업 경영실태와 정책적 지원방안: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기본연구보고서 2010-10)*. 대전: 대전발전연구원.
 김기희·박동화·이승복(2013).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 촉진과 성장을 위한 R&D 지원 효율성 제고 방안. [BOK] 한국은행 지역본부 공동연구보고서 모음집, 3(1).
 김서균·박범수·오경석(2003). 우수신기술 벤처기업의 현 실태와 성

장 및 애로요인 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18(1), 51-62.
 김세음·김주섭(2018). *청년층 노동 시장정책 심층평가: 창업지원 사업(정책연구 2018-20)*. 한국노동연구원.
 김영환·오지선(2017). 여성 기업가정신 증진 및 창업 활성화 방안. (STEFI Insight 2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용정(2014). *대학의 기술기반 창업 영향요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연구보고 2014-02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노두환·정영근·박호영(2016).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애로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벤처창업연구*, 11(1), 1-12.
 노규성·강현직(2012). 청년창업 지원정책 실태와 활성화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0(9), 79-87.
 대한상공회의소(2014). *벤처기업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조사*. Retrieved (2020.02.13.) from http://kocham.hk/xec/?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04952&sid=4f4dd5724965544f9fc294fc9de958dd&module_srl=239.
 박범수·김서균·박태웅(2002). IT 벤처기업의 애로요인과 벤처인큐베이팅 시스템. *전자통신동향분석*, 17(4), 113-122.
 박재용(2000).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의 애로사항 조사 분석 및 센터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99-10)*. 진천:정보사회연구원.
 산업연구원(2008). *기업가정신 육성 및 기업친화정책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Retrieved (2020.02.13.) from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jsessionid=E204733635CA487871CE5A86F4DAB0B0.node02?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research_id=1411000-200800040&pageIndex=2424&leftMenuLevel=160.
 서종석·이근춘·옥영석(2015). 코워킹스페이스 운영전략 연구: AHP 기법을 통한 운영요소 분석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4), 157-165.
 심용호·김윤규·김서균(2015). 기술 창업자와 창업 조력자 간 창업 성공요인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0(2), 43-57.
 안태욱·이일한·박재환(2017). 창의성역량 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부모협력을 통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2(6), 25-39.
 양현봉(2014).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금용연구*, 34(4), 29-54.
 양현봉·박종복(2011).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연구보고서 2014-697)*. 세종: 산업연구원.
 양현봉·조덕희·박종복(2009). *창업기업의 행태 및 성과분석: 경영성과 및 고용창출요인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BB554)*. KIET 산업연구원.
 이설빈(2017). 중소기업의 창업 성공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벤처창업연구*, 12(3), 53-63.
 이설빈·박주경(2018). 중소기업의 SCM역량 모델링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3(2), 115-123.
 이윤준·정기철·장병열·김선우·이민규·김영훈·김서균·정우진·이승호(2012). *기업가정신 코칭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정책연구2012-11)*.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근태·조용근·강현수(2003).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서울: 동현출판사.
 조문현·양동우(2014).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정도가 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지원사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6), 37-46.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2017). *2016 창업기업 실태조사*. Retrieved (2020.02.13.) from <https://www.kised.or.kr/>

- board.es?mid=a1030900000&bid=0008&tag=&act=view &list_no=905.
-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2018). 2018년 벤처기업경밀 실태조사. Retrieved (2020.02.13.) from <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09581&cbIdx=81&streFileNm=bd57f8c7-efc4-4724-83a5-2e1ddd091f52.pdf>.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7). 2017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조사. Retrieved (2020.02.13.) from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348671>.
- 최윤선(2018). 경기도 창업보육사업의 여성 참여 실태와 과제 정책 보고서, 2018-09.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 최종인·백강(2018). 대전지역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 자금생태계 개선방안. *벤처창업연구*, 13(6), 39-48.
- 천혜숙(2016). 여성의 고성장기업 창업이 저조한 원인. *한국콘텐츠학회*, 16(7), 300-308.
- 최정락·강희영·이정수(2014). 부산지역 여성창업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보고서 14-2).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황보윤·이일환(2012). 창업 및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창업대학원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창업비즈니스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7(2), 45-53.
- Ahn, T. U., Lee, I. H., & Park, J. W.(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Creativity Competency Education 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through Parent Cooper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6), 25-39.
- Amit, R., Muller, E., & Cockburn, I.(1995). Opportunity Costs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2), 95-106.
- CB insights(2014). *The Top 20 Reasons Startups Fail*. Retrieved (2020.2.5) from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startup-failure-reasons-top/>.
- Cho, K. T., Cho, Y. K., & Kang, H. S.(2003). *Hierarchical Analysis of Leading Leaders*. Seoul: DongHyun Publishing Co.
- Cho, M. Y., & Yang, D. W.(2014). 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Preparation and the R&D Performance of Technology Based Startup Compani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37-46.
- Choi, J. I., & Baek, K.(2018). Financial Ecosystem Development for Venture Capital Activation in Daejeo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6), 39-48.
- Choi, C. R., Kang, H. Y., & Lee, J. S.(2014). *A Study on the Promotion of Women Entrepreneurship Support in Busan*, (Research Report, 14-2). Busan Women's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 Choi, Y. S.(2018). *Status of Women's Participation in Gyeonggi-do's Startup Nurturing Project and Tasks*. Gyeonggi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 Chun, H. S.(2016). Factors that Explain the Lag in Building High-growth Firms in Women. *The Korea Contents Society*, 16(7), 300-308.
- Hwang, B. Y., & Lee, I. H.(2012). A Study on the Role of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in the Diffusion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Cultur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2), 45-53.
- Kim K. H.(2010). *Small and Medium Companies' Business Administration and Policy Support Methods in Daejeon: Focused on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Companies*, (Research Report, 2010-10).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 Kim K. H., Park D. H., & Lee S. B.(2013). Method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D Support for the Facilitation and Growth of Technology-Intensive Small and Medium Startups, [BOK]. *BOK Regional Economic Report*, 3(1).
- Kim, K. Y.(2004). *Policy Suggestions for Activating Technology Startups*, Issue Paper(2004.12).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Kim, S. K., Park, B. S., & Oh, K. S.(2003). Analysis of the Bottleneck, Growth Factors and the Situation of Excellence New Technology Venture.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18(1), 51-62.
- Kim, S. U., & Kim, J. S.(2018). *Indepth Assessment of Youth Labor Market Policies: Startup Support Project*, (Policy Research, 2018-20). Policy Study Korea Labor Institute.
- Kim, Y. H., & Oh, J. S.(2017). *Methods to Promote Women's Entrepreneurship and Their Startups(STEPI Insight, 205)*.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Kim, Y. J.(2014).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University's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Supporting Policy*, (Research Report, 2014-029).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KIET) (2018). *Methods to Increase a Potential Growth Rate through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and Business-Friendly Policies*. Retrieved (2020.02.13.) from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jsessionid=E204733635CA487871CE5A86F4DAB0B0.node02?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research_id=1411000-200800040&pageIndex=2424&leftMenuLevel=160.
-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KCCI)(2014). *An Investigation into Venture Companies' Management Status and Policy Tasks*. Retrieved (2020.02.13.) from http://kochem.hk/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04952&sid=4f4dd5724965544f9fc294fc9de958dd&module_srl=239.
- Lee, S. B.(2017). An Analysis on the Critical Startup Success Factors in Small-Sized Venture Busines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3), 53-63.
- Lee, S. B., & Park, J. G.(2018). A Study on the SCM Capability Modeling and Process Improvement in Small Venture Firm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2), 115-123.
- Lee, Y. J., Jung, K. C., Jang, B. Y., Kim, S. W., Lee, M. K., Kim, Y. H., Kim, S. K., Jung, W. J., & Lee, S. H. (2012). *Vitalization of Technology-based Startup by Inspiring Entrepreneurship*, (Research Report, 2012-11).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Noh, K. S., & Kang, H. J.(2012).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Promotion Policy and Alternatives to Revitalize the Youth Start-u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9), 79-87.
- Park, B. S., Kim, S. K., & Park, T. W.(2002). The Development Bottlenecks of IT Venture Companies and Venture Incubating System.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7(4), 113-122.
- Park, J. Y.(2000). *Tenant Firms in Infocommunication TBI: A Survey and Policy Recommendations*,(Research Report, 99-10). Information Society Research Institute.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2017). *2016 Survey of Korea Venture Firms*. Retrieved (2020.02.13.) from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tag=&act=view&list_no=905.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2018). *2018 Survey of Korea Venture Firms*. Retrieved (2020.02.13.) from <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09581&cbIdx=81&stFileNm=bd57f8c7-efc4-4724-83a5-2e1ddd091f52.pdf>.
- Roh, D. H., Jeong, Y. K., & Park, H. Y.(2016). An Analysis on the Relative Importance Evaluation of SMEs Ventur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blems Using AH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1), 1-12.
- Saaty, T. L.(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New York: McGraw Hill. International, Revised editions, Paperback. Pittsburgh: RWS Publications*, 180-191.
- Seo, J. S., Lee, G. C., & Ock, Y. S.(2015), A Study of Co-Working Space Operation Strategy: Focused on Operation Elements Analysis by AHP Method.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4), 157-165.
- Sim, Y. H., Gil, W. G., & Kim, S. K.(2015). Study on the Perception Gap between Technology Based Entrepreneurs and Startup Facilitators about Success Factors for Startu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2), 43-57.
- Yang, H. B.(2014). Promoting Knowledge and Technology-based Female Entrepreneurship in Korea, Small Business Finance Research. *Journal of SME Finance*, 34(4), 29-54.
- Yang H. B., & Park J. B.(2009). *Creation of Youth startup Ecosystem and Activation Plan*, (Research Report, 2014-697).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KIET).
- Yang, H. B., Jo, D. H., & Park, J. B.(2009). *Analysis of Startups' Behavior and Results: Focused on Business Administration Results and Job Creation Factors*, (Research Report, BB-554).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KIET).

A Study on Difficulty Factors of Youth Startups for Activating Local Startups*

Ahn, Tae-Uk**
Kang, Tae-Won***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at a time when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extend support for youth startups as part of its policy to create jobs and the focus moves from career and employment to youth startups with a growing interest in the field of youth startup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difficulty factors of youth startups in areas beside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eek ways to overcome difficulty factors, and propose policy implications. To this end, this study set five criteria and 25 sub-criteria to evaluate the difficulties of youth startups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conducting literature review, and performing brainstorming method.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valuation criteria was performed,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on youths aged 19 to 39 in Gunsan area.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largest difficulty factors facing local youths include business model establishment,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nd startup funding in the criteria. As for sub-criteria, the largest difficulty factors are market information acquisitio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 feasibility, technology development, and new market pioneering in descending order. Local youths have much difficulty about the process of turning a business item into a product and commercializing it. According to a comparative analysis by gender, men were a relatively high difficulty in commercializing business models than women. men were a relatively high difficulty in commercializing business models than women. On the other hand, women were higher than men in all factors (management management, entrepreneurship, improvement of entrepreneurship system, and improvement of entrepreneurship awareness) except for factors affecting business model. In addition, the factors of entrepreneurship were found to be relatively different among young people (college students, prospective entrepreneurs, entrepreneurs). In conclusion, it was suggested that in order to revitalize youth entrepreneurship in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olve the difficulties of business model commercialization rather than entrepreneurship fund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ategically support customized entrepreneurship support and situational administrative services because gender and hierarchical difficulties are different than general solutions.

This study presented practical priorities and derivation methods for the entrepreneurship difficulties faced by local youth, and suggested measures and improvements for vitalizing local youth entrepreneurship in the future.

Keywords: Youth Startup, Start-up Difficulties, Local Startup, Entrepreneurship Activation, AHP

* This work was supported under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manag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Grant Number 2019K2A9A2A06024066).

** First Author : Ahn, Taeuk, Director, Gunsan City Youth Center & Start-up Center, helloceo777@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 Kang, Taewo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upply Chain and Logistics, Kunsan National University, twkang@kunsan.ac.kr